

라이프니츠에 있어 동일성 문제

-인간의 관점과 신의 관점-

박 제 철*

주제분류 근대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주요어 라이프니츠, 프레게, 동일성, 대체가능성, 진리값의 변화 없이 원리

요약문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논리학적 작업을 위해 “진리값의 변화 없이(*salva veritate*)”라는 원리를 사용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서로 동일한 것은 진리값의 변화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모든 참인 명제에서 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삼변형”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해도 그 명제의 참임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원리의 사용이 정당화되려면,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이, 개념 차원에서 서로 동일하지만, 서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한다. 프레게의 경우 ‘아침별’과 ‘저녁별’이라는 언어적 표현은 같은 지칭체를 갖지만, 그 뜻에 있어 다르다. 이처럼 라이프니츠도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뭔가 다른 점을 가져야 대체가 정당화된다. 라이프니츠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다른 내포(요소개념)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삼각형”은 “삼각성”이라는 내포를 가지지만, “삼변형”은 이 내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 내포의 차이로 인해 대체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적 저술들을 살펴보면, “삼각형”과 “삼변형”은 모든 내포(요소개념)를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진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결국 “진리값의 변화 없이”라는 원리는, 그 원리의 사용에 있어 정당화될 수 없다.

* 서울시립대학교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그가 개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프레게는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뜻을 이해함으로써, 같은 지칭체, 다른 뜻이라는, 동일성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을 해결하는 듯 하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작업을 일관적으로 해 내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I. 서론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논리학적 작업을 위해 “진리값의 변화 없이 *salva veritate*”라는 원리를 사용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서로 동일한 것은 진리값의 변화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모든 참인 명제에서 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삼변형”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해도 그 명제의 참임은 변화하지 않는다. 문제는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이 두 개념은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 라이프니츠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반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삼각형”이라는 개념은 “삼각성”이라는 내포(요소개념)를 가지며, “삼변형”이라는 개념은 이 “삼각성”이라는 내포를 갖지 않고, 오직 “삼변성”이라는 내포(요소개념)만 가진다.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짐으로써, 이 두 개념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주장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적 저서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질 수 없다.

프레게는 ‘아침별’과 ‘저녁별’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이 둘은 같은 지시체를 갖지만, 그 뜻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우리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침별은 우리가 아침에 관찰하는 별이고, 저녁별은 우리가 저녁에 관찰하는 별이다. 반면 라이프니츠가 이해하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도화되어, 신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개념들은 인식적 제약을 가진 우리의 관점에서 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제약이 없는 신의 관점에서 정식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의 관점에서 “삼각형”을 완전

히 분석하고, “삼변형”을 완전히 분석하면, 그 내포들(요소관념들)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프레게와는 다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닌 신의 관점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라이프니츠는, “삼각형”과 “삼변형”이 그 내포(요소개념)에 있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진리값의 변화 없이”라는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내포와 “삼변형”의 내포가 달라야만 한다. 결국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를 사용함에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동일성과 대체

1. 증명과 정의

모든 증명은 두 가지의 궁극적인 원리에 근거한다. 정의들과 동일률 명제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률 명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 정의들이 따른다. 우선 동일률 명제는 다음과 같다. 즉, A는 A이다($A=A$)¹⁾. 이제 다음과 같은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보도록 하자.

다른 진리들은 정의를 통해서, 즉 개념의 분해를 통해서 이러한 첫 번째 진리들로 환원된다. [진리의] 선험적 증명이 여기에 근거한다.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수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공리로 간주하는 명제, 즉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혹은 “부분은 전체보다 더 작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더 작다”와 “더 크다”를 정의하고, 또 동일률 공리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증명된다. 사실, “더 작다”라는 것은 다른 [더 큰] 것의 한 부분과 동일한 것이다. 이 정의

1)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이다”를 계사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을 동일성으로 해석하는 경우. 라이프니츠의 경우 지금의 맥락에서는 동일성으로 해석된다. 즉 이 명제는 “ $A=A$ ”로 해석되어야 한다.

는 쉽게 이해되며, 또 사람들이 물건들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더 큰 것의 초과분을 제거함으로써, 더 작은 것과 동일한 부분을 찾아낸다. 이상으로부터 다음의 추론이 가능하다. 부분은 전체의 한 부분과 같다(즉 동일물에 의해,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와 같다”라는 원리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같다.) 그리고, 전체의 한 부분과 같은 것은 전체보다 더 작다(“더 작다”의 정의에 의해). 그러므로 부분은 전체보다 더 작다.²⁾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유클리드가 공리로 채택한 명제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를 증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리란 자명한 것, 증명될 수 없는 것, 증명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클리드는 위의 명제를 증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이 명제도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위의 명제는 첫 번째 진리, 즉 ‘A는 A이다’ 형태의 명제가 아니며, 따라서 첫 번째 진리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진리로 환원하는 과정이 바로 증명의 과정이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진리가 증명 과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증명되어야 할 명제는 결국 이 첫 번째 진리로 환원될 것이다. 위의 논증에서 이러한 첫 번째 진리는, “부분은 전체의 한 부분과 같다”이다. 이 명제는 ‘A는 A이다(A=A)’의 형태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주장하는 바는 “부분은 부분과 같다”라는 말, 즉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와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번째 진리가 증명의 첫째 줄에 나왔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증명되어야 할 명제를 이 첫 번째 진리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을 가능케 해 주는 원리가 바로 정의definition이다.³⁾ 위의 논증에서는 “더 작다”라는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즉 “전체의 한 부분과

2) Leibniz, Rauzy 편역, 459

3) Brunschvicg, L., 84.

같은 것은 전체보다 더 작다.”(전체보다 더 작다=df. 전체의 한 부분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진리와 “더 작다”의 정의가 주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증명되어야 할 명제를 첫 번째 진리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환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명제의 술어를 두 번째 명제의 술어로 대체한다. 이러한 대체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체 논증은 다음과 같이 타당한 삼단 논법 1격 바바라Barbara의 한 예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 (모든) A는 C이다.⁴⁾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한 논증에 있어 정의의 기능은 명제의 항들 사이에 대체를 가능케 해 주는 것이다.⁵⁾ 위의 논증에서는 “더 작다”라는 정의로 인해, 첫 번째 명제의 술어(예컨대, 위의 삼단 논법에서 대전제에 나타나는 B)가 정의의 술어(위의 삼단 논법 소전제에서 나타나는 C)로 대체되었다. 증명되어야 할 명제는 이러한 대체를 통해 첫 번째 진리, 즉 동일률로 환원되게 된다. 따라서 논증에 있어 이러한 대체 원리는 핵심을 이룬다.⁶⁾

2. 동일성

증명에 있어 정의뿐만이 아니라 동일성도 대체 원리를 제공한다. 「동

4) Mates, B., 128-129 참조

5) 정의 : A는 BC일 경우, 화자는 다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그는 언제나 A를 BC로 대체할 수 있다(Rauzy 편역, 23)

6) 추론이란 주어진 어떤 명제들로부터 새로운 명제를 형성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주어진 명제들 중, 하나의 명제에 있는 개념terme을 다른 명제에 있는 술어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Rauzy 편역, 23)

일한 것 계산에 대한 논고*Essai de calcul des coincidents*」라는 논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보도록 하자.

정의 1. 진리값의 변화 없이*salva veritate*, 모든 곳에서 어떤 개념 *terme*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그 개념들은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 이는 마치 삼각형과 삼변형의 경우에서와 같다. 왜냐하면, 삼각형에 관해 유클리드가 증명한 모든 명제에서 우리는 진리값의 변화 없이*salva veritate* 삼각형을 삼변형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것을 “진리값의 변화 없이*salva veritate*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동일한 것들은 진리값의 변화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자.

첫 번째로 라이프니츠는 위의 정의에서 개념*terme*들이 서로 대체되며, 또한 이것들이 서로 동일하다고 한다. 라이프니츠에 있어 ‘개념*terme*’이란 ‘*notion*’, ‘*concept*’, ‘*idée*’ 등의 용어들과 같은 것이다. 즉 이것들은 사물도 아니고, 이름, 즉 언어적 표현도 아니다. 이것들은 정신의 한 기능*faculté*으로서, 이를 통해 사물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정신의 어떤 측면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곳에서 어떤 개념*terme*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그 개념들은 서로 동일하다”고 한다. 달리 말해, 개념들이 서로 대체될 수 있으며, 또 서로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라이프니츠가 서로 대체 가능하며, 또 동일한 것의 예로서 “삼각형”과 “삼변형”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왜냐하면 삼각형에 대해 유클리드가 증명한 모든 명제에서 우리는 진리값의 변화 없이 삼각형을 삼변형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7) Rauzy 편역, 407

두고, 우선 「동일한 것 계산에 대한 논고*Essai de calcul des coincidents*」에서 위의 “진리값의 변화 없이”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자.

3. 「동일한 것 계산에 대한 논고*Essai de calcul des coinci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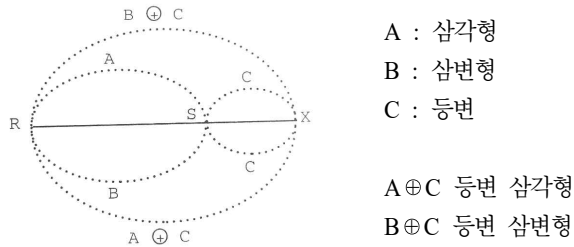
「동일한 것 계산에 대한 논고*Essai de calcul des coincidents*」은 6개의 정의, 두 개의 공리, 두 개의 공준, 그리고 24개의 정리로 이루어진 공리 시스템이다. 우선 6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개념에 관한 것이다. 동일성⁸⁾, 다름⁹⁾, 안에 있음¹⁰⁾, 총합*composant*¹¹⁾, 하위*subalternes*¹²⁾, 배제*disparate*¹³⁾. 그리고 두 개의 공리란 다음과 같다. 즉, $B \oplus N \infty N \oplus B$.¹⁴⁾ 그리고, $A \oplus A \infty A$. 이 두 공리는 이 시스템의 특징을 표현한다. 즉 이 시스템에서 개념들은 순서에도, 또 반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¹⁵⁾

-
- 8) $A \infty B$ 란 A와 B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 9) 다름*different*이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 대체를 성공시킬 수 없다.
 - 10) 안에 있음. 다음의 조건에서 A는 L 안에 있다. A를 포함해 여러 개념들 전체, 그리고 L, 이 둘이 동일하면.
 - 11) 총합*composant*. L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는 개념들의 전체를 *composant*이라고 하고, L을 결합된 것*compose*, 혹은 구성된 것*constitue*라고 한다. $B \oplus N \infty L$ 이란 B가 L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L은 B를 포함하고, B와 N은 둘이서 L을 결합해 내거나 혹은 L을 구성한다.
 - 12) 하위*subalternes*. 하나가 다른 것 안에 있는 개념*terme*들을 말한다. A와 B를 놓고 볼 때, A가 B 안에 있거나 혹은 B가 A 안에 있거나 할 때를 말한다.
 - 13) 배제*disparate*. 서로 안에 있지 않은 개념들을 말한다.
 - 14) 여기서 ‘ \oplus ’라는 표현은 개념들의 결합을 뜻한다. 그래서 만약 “남자 \oplus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뜻한다. 그리고 ‘ ∞ ’라는 표현은 동일성 관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남자 \oplus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총각”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고, 이를 다시 위의 표현들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남자 \oplus 결혼하지 않음 ∞ 총각.”
 - 15) 다음과 같은 점은 명확하다. 즉, 절대적인 *notion*들의 직접적인 결합을 다룰 경우, 우린 순서도 또한 반복도 고려하지 않는다. ‘뜨겁고 습한’과 ‘습하고 뜨거운’은 동일한 말이다. ‘뜨거운 불’이나 ‘흰 우유’는 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Rauzy 편역, 412)

이렇게 6개의 정의와 2개의 공리를 가지고 라이프니츠는 24개의 정리를 증명한다. 이제 정리 9를 봄으로써, 동일성이 논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정리 9. 만약 $A \infty B$ 라면, $A \oplus C \infty B \oplus C$ 이다. 만약 우리가 동일한 것coincidents을 하나의 개념에 [각각] 덧붙이면, 그 결과는 [역시] 동일한 것coincidents이 된다. 사실, 만약 명제, $A \oplus C \infty A \oplus C$ (이는 그 자체로 참이다)에서 A 를 그와 동일한 것인 B 로 한 번 바꾼다면(정의 1을 통해), 그 결과 $A \oplus C \infty B \oplus C$ 가 얻어진다.¹⁶⁾

이러한 정리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점은 정리 9의 증명에서도 역시 첫 번째 진리(동일성 원리), 즉 $A \oplus C \infty A \oplus C$ 와, 대체 원리, 즉 $A \infty B$ 가 증명의 핵심적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증명이 앞에서 보았던 증명과 다른 점은, 앞에서 본 증명에 있어 대체 원리는 정의였는데 반해 여기서의 대체 원리는 동일성이라는 점뿐이다. 따라서 이 증명에서도 첫 번째 진리, 즉 동일률과 대체 원리, 즉 동일성이 증명의 핵심을 이룬다.

두 번째 지적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라이프니츠가 든 예에서 “삼각

16) Rauzy 편역, 414

형”과 “삼변형”이 동일한 것coincident이며, 동시에 서로 대체 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짐으로써, 라이프니츠의 논증을 평가하고자 한다. 서로 동일한 것은 무엇이고, 서로 대체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답하기 전에 우선 ‘동일한 것들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형식화 해 보자. 이러한 형식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여기서 ‘I’는 동일성 관계를 나타내고 ‘Sub’는 대체 가능성을 나타낸다).

(1)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

라이프니츠의 경우 서로 동일한 것, 즉 첫 번째 (x,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삼각형”, “삼변형”이고, 또한 대체되는 것, 즉 두 번째 (x,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삼각형”과 “삼변형”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서로 동일한 것, 그리고 서로 대체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개념이라는 말이다. 정의 1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진리값의 변화 없이 모든 곳에서 어떤 개념terme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그 개념들은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동일성 관계나 대체 가능성은 이름이나 기호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아닌가? 동일성 관계는 다른 관계들, 예를 들면, “크다”, “작다”, “났다” 등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다른 두 사물들 사이에서 말해진다. 반면, 동일성 관계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해지는 관계이다. 모든 것들은 오직 자기 스스로와만 동일하고, 스스로가 아닌 것, 즉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예컨대 이광수는 오직 이광수 자신과만 동일하며,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 반면, 이광수는 춘원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논증은 타당하다. 즉 이광수가 무정을 썼다. 그리고 이광수는 춘원이다. 따라서 춘원이 무정을 썼다. 이 논증에서 대체 원리를 제공

하는 ‘이광수는 춘원이다’라는 명제는 ‘이광수’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과 ‘춘원’이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같음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일성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대체되는 것,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다. 동일성 관계를 맺는 것은 ‘춘원’이라는 이름의 지칭체, 그리고 ‘이광수’라는 이름의 지칭체이고, 위의 논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체되는 것은 이름들이다.

이러한 주장은 프레게가 그의 개념 기호법에서 채택한 입장이다. 뜻과 지시체라는 논문에서 프레게는 동일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일성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동일성이란 하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대상들 간의 관계인가, 아니면 이름들이나 대상들이 갖는 기호들 간의 관계인가? 나의 책 『개념 기호법』에서 나는 이름들이나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a)$ 와 $(a=b)$ 는 분명히 인식적 가치를 달리하는 언명들이다. 형식 $(a=a)$ 라는 언명은 선험적인 것이고 칸트를 쫓아 분석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형식 $(a=b)$ 라는 언명은 우리 지식의 확장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험적으로 항상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가장 창의력 있는 천문학적 발견들 중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조그마한 흑성이나 혜성을 확인하는 것은 항상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들이, 동일성이란 ‘a’와 ‘b’라는 이름들이 지시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라고 간주한다면, $(a=b)$ 는 $(a=a)$ (즉 $a=b$ 가 참인 경우에)와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관계는 사물 자체에 관해 표현한 것이 되고, 따라서 각 사물이 어떤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된다. $(a=b)$ 라고 말하면서 의도한 것은, 기호들이거나 이름들인 ‘a’와 ‘b’가 똑같은 사물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호를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즉 기호들 사이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동일성과 대체 가능성 원리 “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 원리에서의 두 번째 (x, y) 는 이름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름들은 동일한 어떤 것의 서로 다른 두 이름이며, 서로 대체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동일성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라이프니츠의 진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다. 진리에 관한 한 라이프니츠는 객관주의자이다. 즉 진리는 인간의 자의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흄스의 경우 진리는 인간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참인 명제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내린 정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말과 사물들의 관계」라는 대화편에서 흄스의 이러한 입장을 볼 수 있다.

- A : 몇몇 명석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란 이름, 혹은 문자를 사용해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 B : 아주 역설적인 의견이네요
- A :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정의란 증명에 있어 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B :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정의들만을 서로 결합해 어떤 명제들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 A : 그렇다면 그러한 명제들의 진리는 정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 B : 그렇죠
- A : 헌데 정의들은 우리의 자의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B : 어떻게 그렇죠?
- A : 이러 이러한 도형을 뜻하고자 할 때 수학자들은 ‘타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이러한 일은 수학자들의 자의성에 속하는 일이라 보지 않으십니까?¹⁸⁾

17) Frege, sens et denotation, 102-103.

18) Discours de métaphysique, 105.

논증이란 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다른 명제들을 이용해 밝히는 과정이다. 이 때 다른 명제들이 바로 정의들이다. 그러나 정의란 언어들의 자의적인 결합이다. 따라서 이 자의적인 언어들의 결합으로부터 어떤 명제의 참이 증명되므로, 명제의 참값, 즉 진리도 역시 자의적인 것이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흄스의 입장이다. 라이프니츠는 어느 정도 흄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가 받아들이는 흄스의 주장은, 언어와 사물간에 관계(여기서는 유사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흄스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진리가 자의적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말과 사물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그에 따르면, 말과 사물 사이에는 어떤 항구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말과 말의 결합,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결합,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A : 말과 사물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죠? 예를 들면, 0과 무 사이에, 혹은 A와 선분 사이에? 그러므로 당신은 다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 “닭았다”라는 것은 필요치 않고. 예를 들면, 빛lux과 들다ferre라는 말들이 그렇죠[‘빛lux’이란 말과 빛 사이에, ‘들다ferre’라는 말과 든다는 것 사이에 닭음 관계가 없다는 뜻]. 비록 합성어 ‘금성lucifer’은 단어 ‘빛lux’과 ‘들다ferre’와 관계가 있고, 또 이 관계는 ‘금성lucifer’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빛lux’과 ‘들다ferre’가 각각 뜻하는 것 사이의 관계와 조용하지만 맞입니다.¹⁹⁾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말로 풀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천(天)’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닭지 않았고, ‘상(上)’이라는 단어는 위(上)와 닭지 않았다. 그러나 합성어 ‘천상(天上)’이라는 단어는 ‘천(天)’이라는 단어, 그리고 ‘상(上)’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고, 또 이 관계는 단어 ‘천상(天上)’이 뜻하는 것, 그리고 단어 ‘천(天)’과 단어 ‘상(上)’ 각각 뜻하는 것

19) Discours de métaphysique, 106.

사이의 관계와 조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논증에 있어 사용되는 기호들은 자의적이지만(기호와 사물은 닮지 않았지만), 기호들의 결합은 자의적이지 않다. 이것들은 사물의 질서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동일성과 대체 가능성 원리”, 즉 “ $I(x, y) \Rightarrow 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 원리에서 서로 동일하며 또 대체되는 것인 x 와 y 는 이름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들이 이름들이라면,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일 테고, 따라서 진리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 $I(x, y) \Rightarrow 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의 뒷 부분에는, “진리값의 변함없이 *salva veritate*”라는 조건이 나온다. 이 식이 자의적으로 선택된 이름들에 관한 것이라면, “진리값의 변함없이”란 조건은 무의미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x 와 y 자리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이름들이, 진리값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증에서 동일성 관계는 자의적인 이름들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리, 즉 사물들간의 참된 관계의 전달자인 것이다.

이 모든 주장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동일성 관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1) 동일성 관계에서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프레게의 경우, 같은 것은 사물이고, 다른 것은 이름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동일성 관계는 논증에서 대체 원리로 기능 하는 만큼,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a=b)$ 라는 형식의 명제가 $(a=a)$ 라는 형식의 명제와 서로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프레게의 말처럼, “동일성을 ‘a’와 ‘b’라는 이름들이 지시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라고 간주한다면, $(a=b)$ 는 $(a=a)$ 와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동일성 관계는 사소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모든 동일성 관계가 뜻하

는 바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와 같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게의 말처럼 $(a=a)$ 라는 형식의 명제와 $(a=b)$ 라는 형식의 명제는 그 인식적 차원에 있어 서로 다르다. $(a=a)$ 형식의 명제는 분석적이며 $(a=b)$ 형식의 명제는 종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관계는 궁극적으로 $(a=a)$ 형식의 명제(대상들 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a=a)$, 즉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와 같다"라는 명제가 $(a=b)$ 라는 형식의 명제를 참이게끔 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 관계는 $(a=b)$ 형식의 명제가 겉으로 표현되고, 또 그 바탕에는 이 명제를 참이 되게끔 해 주는 $(a=a)$ 형식의 명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a=b)$ 형식의 명제와 $(a=a)$ 형식의 명제가 서로 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a=b)$ 가 참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형식의 명제는 $(a=a)$ 형식의 명제와 전혀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개념 기호법을 쓸 때 프레게가 취한 입장은 이 각각의 차원이 언어적 차원과 그 언어적 표현이 지칭하는 사물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들, 예를 들어 $(a=b)$ 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a'와 'b'는 서로 다르다. 반면 이 명제가 참인 이유는 a가 표현하는 지칭체와 b가 표현하는 지칭체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즉 $(a=a)$ 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동일성 관계에는 서로 같은 것(이것이 동일성 명제를 참으로 만들어 준다)과 서로 다른 것(이것이 논증에서의 대체를 의미 있게 해 준다)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각각 어떤 차원에 속해야 하는지를 제한한다. 동일성 관계가 대체 원리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동일성 관계의 양 항을 서로 대체해도 각각의 명제가 갖는 진리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동일성을 정의할 때 라이프니츠가 "진리값의 변화 없이 *salva veritate*"라는 조건을 집어넣은 이유이다. 그럼 각각의 차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세 개의 차원을 들 수 있을 것 같

다. 우선 사물들의 차원이 있다. 사물들은 자기 스스로와 같거나, 혹은 다른 것들과 다르다. 프레게에 있어 이 차원이 동일성 명제의 진리를 보장해 준다. 두 번째로 언어의 차원이 있다. 이 차원에 속하는 것들은 이름 혹은 단어들이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어 질 수 있을 때, 그 이름들은 각각의 명제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이 두 차원이 동일성 관계를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이 프레게가 개념 기호법에서 취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개념, 의미의 차원이다. 뜻과 지시체라는 논문에서 프레게는 사물-언어가 동일성 관계를 의미 있게 해 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 그가 새로 채택한 입장은 사물-뜻이 동일성 관계를 의미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이름들이나 기호들이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명명하는 한에 있어서만 이것들 사이에서 유지된다. 그 관계는 똑같이 지시하고 있는 사물과 두 기호들이 각기 연계됨으로써 매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자의적이다. 누구나 어떤 임의의 사건이나 대상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어떤 사물에 관한 기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장 ($a=b$)는 해당 주제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시의 양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기호의 지시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기호가 지시하는 것 외에도 그 기호(이름, 단어들이나 문자들의 결합)와 연계되어 존재하는 것, 즉 내가 기호의 뜻이라고 의도한 바를 생각해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호의 뜻에는 표현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표현 ‘선분 a와 선분 b의 교차점’과 ‘선분 b와 선분 c의 교차점’의 지시체는 똑같지만 그 표현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 ‘저녁별’의 지시체는 ‘아침별’의 지시체와 동일하지만 그 뜻은 그렇지 않다.²⁰⁾

프레게는 여기서 세 가지의 방식들을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존재 방식이다. 사물의 존재 방식은 자기 스스로와 동일하다는 것이

20) Frege, Sens et denotation, 103

다. 두 번째는 지시하는 방식이다. 우린 존재하는 사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한다. 이 때 이 지시하는 방식은 자의적이다. 세 번째는 표현하는 방식이다. 프레게는 이것을 뜻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뜻들이 동일한 지칭체를 가짐으로 인해 동일성 관계를 의미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만약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두 조건을 따른다면, 라이프니츠에 있어 서로 대체되는 것들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호는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본 식 “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를 고려해 볼 때 잘 드러난다. 만약 식의 x, y 자리에 자의적으로 선택된 이름들 혹은 기호들이 온다면, 이 식은 언제나 참일 것이다. 그 이름들이 무엇이건 간에 이 식의 진리는 이름 붙이는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며, 하나의 사물에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 붙이기 가능한 이상, 이 식은 언제나 참일 것이다. 이 경우 명제의 진리치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규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논증도 이러한 규제적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말과 사물의 연관」이란 논문은, 흄스에 반대해 진리에 대한 이런 규제적 힘을 옹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일성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라이프니츠의 동일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에서 동일성 관계 I 는 사물이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이고($a=a$), Sub 는 그 사물들에 대한 뜻들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text{Sub}(x, y)$ 에서 각 항을 이루는 것들은 뜻들이다. 사물이 스스로와 동일하다는 근거 위에서, 서로 다른 뜻들, 즉 x 와 y 는 동일성 관계를 맺으며,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위에서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이런 해석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급을 『새로운 시론nouveaux essais』에서 하고 있다.

배제 개념(*disparates*²¹⁾에 관련한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들이다. 즉, 한 관념의 대상은 다른 관념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것은 색깔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명제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비록 모든 인간이 동물이지만 인간과 동물은 같지 않다.

이러한 관념들이 더 이상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해된다면, 위의 명제들은 증명과 관계없이, 명제의 부정으로의 환원과도 관계없이, 그리고 모순율로의 환원과도 관계없이 자명하다. 만약,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동하기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과 삼변형은 같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혼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둘을 잘 고찰해 보면, 세 각과 세 변은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사각의 사각형과 직사각형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혼동한 것이다. 왜냐하면 네 변을 가진 도형 중 오직 하나만이 네 직각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물에 있어 우린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삼각성과 삼변성은 같지 않다. 혹은 삼각형의 형상인 *raison formelle* 과 삼변형의 형상인은 같지 않다.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말이다. 이것들은 한 사물에 대한 서로 다른 관계이다²²⁾.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1600년대에 철학자들은 용어의 외연과 내포를 구별했다. 용어의 외연이란 그것이 적용되는 사물들의 집합을 말한다. 용어의 내포란 그 용어가 사물들에 적용되게끔 해 주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개념의 내포는 그것을 제거하면 개념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특성들이라고도 말해 진다. 그 뒤에 용어의 내포, 즉 ‘comprehension’을 내포, 즉 ‘intension’이라 부르게 되었고, 내포가 곧 의미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삼각성과 삼변성은 삼각형과 삼변형의 내포, 즉 뜻으로 볼 수 있다.²³⁾

다음으로 형상인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B이다’라

21) 서로 안에 있지 않은 개념들을 말한다.

22) *Nouveaux essais*, 286

23) *Arnauld, A. & Nicole, P.*, 159-160.

고 할 때, ‘B이다’라는 술어화를 가능케 해 주는 이유. 다시 말해, 우리는 B임(Beité)으로 인해, ‘A는 B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삼각형”은, “삼각형”으로서 “삼각성”이라는 형상인을 갖고, “삼변형”은, “삼변형”으로서 “삼변성”이라는 형상인을 갖는다. 이 경우 “삼각형”과 “삼변형”은 동일하지만, 이것들의 내포로서의 “삼각성”과 “삼변성”은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삼각형”과 “삼변형”은 서로 다른 내포, 서로 다른 뜻을 갖는다. 이 주장을 좀 더 검토해 보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살펴보자.

(1) 아침별은, 아침별로서 아침에 뜬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문장의 진리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두 번째 아침별을 저녁별로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침별과 저녁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할 경우 전체 문장의 뜻은 바뀐다.

(2) 아침별은, 저녁별로서 아침에 뜬다.

여기서 이 문장의 진리값은 (1)과 같지만 그 뜻은 (1)과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두 명제는 그 진리값에 있어서는 서로 같지만, 뜻이 다르다.

(3) “삼각형”은, “삼각형”으로서 내각의 합이 180도 이다.

(4) “삼각형”은, “삼변형”으로서 내각의 합이 180도 이다.

(3)이 어떤 각을 가진 도형으로서 그 각의 합이 180도임을 주장하는 반면, (4)는 어떤 도형이 선을 가진 도형으로서 그 각의 합이 180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3)은 그 뜻의 전달 차원에서 적절한 반면, (4)는 그 뜻의 전달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3)에서 두 번째 “삼각형”을 “삼변형”으로 대체할 경우, 전체 문장의 진리값은 바뀌지 않지만 문장의 뜻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삼각형”과 “삼변형”은 문장의 진리값과 관련해 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문장의 뜻과 관련해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만약 이 둘이 같은 뜻을 갖는다면 대체 후에도 전체 문장의 뜻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삼각형과 삼변형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른 뜻이 바로 각각의 형상인, 내포이다. 따라서 “삼각형”은 “삼각성”을 형상인으로 갖지 않고, “삼변형”은 “삼각성”을 형상인으로 갖지 않는다. “이것들(“삼각성”과 “삼변성”)은 한 사물(“삼각형”과 “삼변형”)에 대한 서로 다른 관계(뜻들)이다.”²⁴⁾

이러한 해석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우선 같은 것(“삼각형”과 “삼변형”)과 다른 것(뜻들, 즉 “삼각성”과 “삼변성”)이 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한다. 둘째로 여기서 대체되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아닌 뜻들, 즉 개념의 내포들이다. 이것들은 진리를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동일성에 관한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

4. 새로운 해석적 어려움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 어려움이란 이런 것이다. 과연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삼각형”과 “삼변형”은 자신의 내포로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가? 만약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우린 위의 해석을 라이프니츠의 동일성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

24) Nouveaux essais, 286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위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즉 “삼각형”이란 개념의 내포와 “삼변형”이란 개념의 내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제 왜 그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5. “안에 있음est dans”과 “동일성identité”

정의란 개념의 분해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란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인간”이란 개념을 “합리성”, “동물” 등등의 단순 개념으로 분해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다른 진리들은 첫 번째 진리, 즉 동일물로 환원된다. 이것이 선형적 증명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라는 정의를 통해 “합리적 동물은 동물이다”로, 그리고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첫 번째 진리로 환원된다(마치 “착한 철수는 철수이다”처럼). 따라서 논증이란 정의, 즉 개념의 분해에 기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논증은 개념의 분해에 기반 한다. 이제 이러한 개념의 분해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사유의 요소들”이란 논문에서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완전한 논증이 있다면, 다시 말해 어떠한 것도 증명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논증이 있다면, 사유의 요소(사유의 알파벳)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이란, 모든 것이 분석되었을 때라야 만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지금에 와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논증은, 만약 우리가 동일성에 도착한다면, 완전한 것이라고 논증은 모든 것이 분석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완전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25) Leibniz, Rauzy 편역, 21

논증은, 예컨대, 인간이란 관념이 모든 단순 관념으로 분해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개념의 몇몇 요소(예를 들어 “합리성”, “동물”)로만 분해되어도, 만약 이러한 분해를 통해 첫 번째 진리, 즉 동일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완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일한 것 계산에 대한 논고*Essai de calcul des coincidents*」의 정의 3을 보자. 이 정의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A가 L 안에 있다, 즉 L이 A를 포함한다는 말은, A까지 친 여러 개념*terme*들 전체와 L이 동일하다는 말이다.”²⁶⁾ A가 L 안에 있다면 우린 A를 L의 정의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린 L을 분해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A를 얻기 때문이다. L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순 개념*terme*들 중 A만 제외한 것을 N이라 한다면, 우린 위의 정의에 따라 다음을 얻는다. $L \infty A \oplus N$. 만약 우리가 A로 L을 정의한다면, 그리고 논증 과정에서 이 정의를 사용해 동일률에 닿을 수 있다면, N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N이 어떤 단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도 논증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적절한*adequate* 것이 아니다. 이 정의는 구분되어 있음*distincte*에도 불구하고, 즉 단순 개념으로 분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 개념으로의 분해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어떤 정의들은 구분되어 있는*distincte*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정의로서 기능한다. 요구되는 것은 오직 주어진 명제를 동일률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반면 적절한 정의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정의를 보자.

- (1)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l'homme est animal rationel*).
- (2) 둘은 하나 더하기 하나이다(*Deux est un et un*).

26) Leibniz, Rauzy 편역, 407

이 두 정의에서 나타나는 ‘...이다(est)’는, 비록 같은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1)에서의 ‘...이다(est)’는 계사copule이다. 이 때 ‘...이다(est)’의 기능은 포함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인간(l’homme)”이란 개념 안에 “동물”이란 개념과 “합리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l’homme est animal rationel)”이 참이라면, 즉 “인간(l’homme)”이란 개념 안에 “동물(animal)”이란 개념과 “합리성(rationel)”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간은 동물이다(l’homme est animal)”이란 명제도, 즉 “인간(homme)”이란 개념 안에 “동물(animal)”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명제도 역시 참일 것이다. 이 경우, “인간”이란 개념은 적절 adequate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개념의 요소 개념, 즉 “동물”과 “합리성”은 더 단순한 요소 개념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에서의 ‘...이다(est)’는 포함 관계 이상을 보여준다. 만약 (2)의 ‘...이다’가 (1)의 ‘...이다’와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만을 보여준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는 참이 될 것이다. 즉, “둘은 하나이다(Deux est un).” “인간은 동물이다(L’homme est animal)”이란 명제는 참이지만 “둘은 하나이다(Deux est un)”이란 명제는 분명 거짓이다. 따라서 (2)의 ‘...이다est’는 포함 관계를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동일성 관계를 표현한다.

어떤 정의에서 ‘...이다(est)’가 동일성을 뜻할 경우 그러한 정의는 개념들의 포함관계를 표현하는 정의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우선 『새로운 시론nouveau essai』에서의 테오필(Theophile)의 의견을 들어보자.

삼은 이 더하기 일이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 당신이 직관적 인식의 예로서 제시하는 이러한 명제에 대해,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즉 이 명제는 삼이란 개념의 정의일 뿐이라고. 왜냐하면, 수들에 관한 가장 단순한 정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는 1 더하기 1이고, 3은 2 더하기 1이고, 4는 3 더하기 1이고 등등.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정의들 속에는 어떤 언명이 숨어 있습니

다. 즉, 이 관념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언명이죠. 그리고 이 언명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선 드러날 경우, 그 정의 안에는 직관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적절한 adequate 정의는 이성의 기본적인primitive 진리를 포함하며, 결론적으로 직관적 인식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²⁷⁾

수들에 대한 정의에는 이러한 수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언명이 숨어 있다.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각각의 수의 정의에는 이러한 수들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언명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등근 삼각형”이란 개념은 가능한가? 이 개념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등근”이란 개념은 “각”이란 개념을 네가티브하게 가지고 있는(“-각”) 반면, “삼각형”이란 개념은 “각”이란 개념을 포지티브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각” & “각”).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등근 삼각형”이란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려준다. 그러나 어떤 개념이 정말로 불가능한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우리에게 빈번하다. 예를 들면 “모든 운동들 중 가장 빠른 운동”의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한 개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분석해야 한다. 그 개념을 완전히 분석한 후, 기본적인primitive 개념, 즉 더 이상 분석이 안 되는 개념들 중 “A”의 형식을 띤 개념과 “-A”의 형식을 띤 개념이 동시에 나오면, 원래의 그 개념은 불가능한 개념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개념이다.

따라서 수에 대한 정의들 속에, 그 관념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언명이 숨어 있다는 말은, 수에 대한 정의에 있어, 그 수의 모든 단순 관념들이 열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정의 안에는 직관적 인식이

27) Nouveaux essais, 289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직관적 인식이란 “내 정신이 한 번에 그리고 판명하게, 한 개념의 모든 기본적인primitive 요소를 파악하는”²⁸⁾ 인식을 말하기 때문이다.²⁹⁾

$2=1+1$ 이란 산술 명제는 사실 $1+1=1+1$ 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2=df. 1+1$ 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동일성 관계에서 양쪽 항에 오는 개념의 요소들은 모두 열거되어서 서로 1 : 1 대응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각형”과 “삼변형”이 동일하다면, “삼각형”을 이루는 모든 요소 관념과 “삼변형”을 이루는 모든 요소 관념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삼각형이 “a”, “b”, “c”... 등의 단순 요소로 구성된 복합 개념이라면, 그리고 “삼각형”과 “삼변형”이 동일하다면, “삼변형”도 역시 단순 관념 “a”, “b”, “c”...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라이프니츠는 “삼각형”의 한 뜻, 즉 “삼각성”과 “삼변형”의 한 뜻, 즉 “삼변성”이 서로 다르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두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개념들 사이의 1 : 1 대응 관계는 깨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형”과 “삼변형”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

우선 다음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삼각성”과 “삼변성”이 서로 다르다는 위의 주장은, 우리가 설정한 동일성 관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즉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진리를 운반해야 한다는 조건 말이다. “삼각형”의 형상인, 즉 “삼각성”과 “삼변형”의 형상인 즉 “삼변성”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이라는 개념과 “삼변형”이라는 개념이 서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은 삼변형이다”라는 동일성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28) Discours de métaphysique, 238

29) Toutes nos idées sont composées d'un très petit nombre d'idées simples, don't l'ensemble forme l'*Alphabet des pensées humaines*. (Couturat, 431)

그러나 요소 개념들이 1 : 1 대응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도 “삼각형”과 “삼변형”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정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요소 개념으로 이루어진 두 개념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라이프니츠에 있어 동일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에서 제시한 동일성 관계의 두 조건 말고도 지금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문제, 즉 요소 개념들이 1 : 1 대응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도 “삼각형”과 “삼변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리는 우선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정리로서 주어진다. 우선 문제를 보도록 하자.

정리. 23. 두 배제 개념disparates A, B를 가정하자.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C를 찾아라. 즉, C는 A와도 다르고, B와도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A, B와 결합해, $A \oplus C \infty B \oplus C$ 가 되도록 해야 한다.³⁰⁾

이 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렇다. 이 문제는 “A”와 “C”로 이루어진 복합 관념과 “B”와 “C”로 이루어진 복합 관념이 서로 동일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이 경우 동일성 관계를 이루는 두 복합 관념의 요소 관념들은 1 : 1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준다.

해결 : (공준 2에 의해) $C \infty A \oplus B$ 라고 놓자. 그러면 이제 해결된 것이다. A와 B는 배제 개념disparates이다(가정에 의해). 달리 말하면 A와 B는 서로 안에 있지 않다. 따라서 $C \infty A$ 도 아니고, $C \infty B$ 도 아니다(정리 13에 의해). A, B, C 모두 서로 다르다. 문제가 요구한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A \oplus C \infty A \oplus B$ 다. 달리 말해 (공리 2에

30) Leibniz, Rauzy 편역, 421

의해) $A \oplus C \infty A \oplus B$ 이다. 우리가 찾던 결론이다.³¹⁾

라이프니츠는 “C”를 “ $A \oplus B$ ”와 동일한 것으로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보자. “A”를 “결혼하지 않음”으로 놓고, “B”를 “남자”로 놓자. 이 문제는 “ $A \oplus B$ ”와 동일한 “C”, 즉 “총각”을 설정함으로써 해결된다. 정리 22에서 볼 수 있듯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다.³²⁾ 따라서 “(1) $A \oplus C \infty B \oplus C$ ”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 ∞ “남자 총각”이며, “(2) $A \oplus C \infty A \oplus B$ ”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 ∞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1)은 다시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며, (2)는 다시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공리 2, 즉 “ $A \oplus A \infty A$ ”에 의해, 위의 (1), (2)는 각각 “결혼하지 않은 남자” ∞ “결혼하지 않은 남자” ∞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A \oplus C \infty B \oplus C$ 의 경우에서처럼 동일성을 이루는 양 항이 서로 다른 요소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항들을 분석하면, 요소 관념들은 서로 1 : 1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즉 요소 개념들이 1 : 1 대응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두 복합 개념은 동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부정적 답을 내게 한다. 사실 「추상물 증명에 대한 우아한 표본Echantillon elegant de demonstration dans les abstraits」의 정리 3에 대한 여백에서의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정리가 여기 삽입될 수 있다. 동일한 것들 중 하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 안에 있다. 만약 A가 B안에 들어 있고, $B \infty C$ 이면, 그렇다면 A는 C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A가 B안에 들어 있다(가정에 의해 참)는 명제에서 B 대신 C를 넣으면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³³⁾

31) Leibniz, Rauzy 편역, 407

32) “equilaterre equiangle, c’est à dire: regulier”(Leibniz, Rauzy 편역, 420)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정리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삼각성이 삼각형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삼각형 ∞ 삼변형”이다. 그렇다면 “삼각성은 삼변형 안에 들어 있다.” 즉 “삼각형”을 이루는 단순 개념들 전체에는 “삼각성”뿐만 아니라 “삼변성”도 포함되어 있고, “삼변형”을 이루는 요소 개념들 전체에는 “삼변성” 뿐만 아니라 “삼각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삼각형 ∞ 삼변형”이라는 동일성 관계에서 다른 것으로 내세웠던 단순 요소들의 구성이 결국은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삼각형”과 “삼변형”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없다. “삼각형”은 “삼각형”으로서 “삼각성”이란 내포, 즉 “삼각성”이란 뜻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은 “삼변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삼변성”이란 내포, “삼변성”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라이프니츠의 동일성 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운 동일성 관계의 조건을 라이프니츠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삼각형”과 “삼변형”이 서로 다른 뜻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반면, 서로 다른 것, 즉 서로 대치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해도 역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진리의 운반자는 자의적인 기호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로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 한다.

III. 결론

동일한 것, 대체되는 것,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어야 한다. 프레게는 동일한 것은 사물들(지시체)이며, 대체되는 것은 뜻이라는 최종 결

33) Leibniz, Rauzy 편역, 428

론을 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다. 프레게에게 있어 뜻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아침별은 우리가 아침에 관찰하는 별이고, 저녁별은 우리가 저녁에 관찰하는 별이다. 이 둘은 그 뜻에 있어 우리가 각 별을 관찰하는 관점, 시점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별로 알았던 이 두 별이 사실은 같은 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발견은 사소하지 않은 발견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천문학적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동일성과 대체가능성의 원리, 즉 “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라는 라이프니츠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프레게가 직면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것은 무엇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동일한 것은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단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따르면, 단어는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어 진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정식화된 라이프니츠의 원리에는, “진리값의 변화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대체되는 것은 자의적인 단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용어법을 보아서도(‘관념terme’),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서도, 남은 후보는 개념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요소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갖는 “삼각성”이라는 요소개념, 그리고 “삼변형”이라는 개념이 갖는 “삼변성”이라는 요소개념이다. 개념 “삼각형”은 개념 “삼변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삼각형”이라는 개념은 “삼각성”이라는 내포를 가지며, “삼변형”이라는 개념은 “삼변성”이라는 내포를 가진다. 그리고 “삼각성”과 “삼변성”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주장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끝까지 파헤쳐 가면, 라이프니츠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 어려움이란, “삼각형”에서 “삼변성”이라는 내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개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뜻에 대한 프레게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바로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프레게에게 있어 뜻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프레게가 “저녁별’의 지시체는 ‘아침별’의 지시체와 동일하지만 그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때, 그 의도는, 아침별은 우리가 아침에 관찰하는 별이고, 저녁별은 우리가 저녁에 관찰하는 별로서, 이러한 관찰의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별로 알았던 것이 나중에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 같은 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프레게의 주장이다. 반면 개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뜻에 대한 프레게의 생각과 다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개념이라는 것은 사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이프니츠는 개념을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라이프니츠는 유다라는 사람의 개념(“유다”)도 있으며, 이 개념을 분석하면(오직 신만이 이 개념을 분석할 수 있다), 유다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의 개념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사람들의 개체 개념은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사건들이 왜 참인지, 그 이유에 대한 선험적 증명을 그 개념 안에서 본다. 혹은, 우리는 왜 다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선험적 증명을 본다.³⁴⁾

이렇게 볼 때, “삼각형”이라는 개념, 그리고 “삼변형”이라는 개념은 우

34) Discours de métaphysique, 47.

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 즉 그 요소개념들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관점이 반영되는 한, 이 두 개념은 모든 요소개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추상물 증명에 대한 우아한 표본 Echantillon elegant de demonstration dans les abstraits」의 정리 3에 대한 여백에서 주장한 바이기도 하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이상, 라이프니츠는 “삼각형”과 “삼변형”이 서로 다른 내포를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동일성과 대체가능성의 원리, 즉 “ $I(x, y) \Rightarrow \text{Sub}(x, y)$, 진리값의 변화 없이”라는 라이프니츠의 원리에서 대체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원리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필요한데, 서로 다른 것으로 제시된 “삼각형”의 내포와 “삼변형”의 내포는, 양 개념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결국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레게처럼, 우리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뜻을 이해한다면,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에 대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신의 관점으로까지 고도화시킴으로써, 이 원리에 대한 사용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로 보인다.

참고문헌

라이프니츠 원전(약어)

- Discours de métaphysique: Leibniz, Gottfried Wilhelm, *Discours de métaphysique et correspondance avec Arnauld*, ed. Le Roy, Paris, J. Vrin, 1957.
- Nouveaux essais: *Nouveaux essais sur l'entendement humain*, Chronologie, bibliographie, introduction et notes par Jacques Brunschwig, Flammarion, 1990.
- Rauzy 편역: Leibniz, Gottfried Wilhelm, *Recherches générales sur l'analyse des notions et des vérités*, Paris, PUF, 1998.

2차 문헌

- Arnauld, A. & Nicole, P., *La logique ou l'art de penser*, Paris, 1662 (Notes et postface de Charles Jourdain, Gallimard, 1992).
- Brunschvicg, L. (1922) *Les étapes de la philosophie mathématique*, Paris, Félix Alcan.
- Couturat, L. (1901) *La logique de Leibniz*, Félix alcan, Paris(reprint Georg Olms Verlag, 1985).
- Fichant, M. (1991) G. W. Leibniz, *De l'horizon de la doctrine humaine*, La restitution universelle, Vrin, Paris.
- Frege, Über Sinn und Bedeutung,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p. 25-50, (trad. Fr. in: *Ecrits logiques et philosophiques*, traduits par Claude Imbert, Paris, 1971, p. 102-126).
- Mates, B. (1986) *The philosophy of Leibniz. Metaphysics and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Rauzy, J.-B. (1993) «*Quid sit natura prius?* La conception leibnizienne de l'ordre», in: *Revue de Metaphysique et de Morale*, 31-48.

Problem of Identity in Leibniz's logical works

BAK, Jechul (Univ. of Seoul)

Leibniz uses “the principle of *salva veritate*”(without changing the truth) for his logical work.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same thing can be replaced with each other without changing the truth value. For example, if the concept of “triangle” and the concept of “trilateral” are the same, replacing the concept of “triangle” with the concept of “trilateral” in all true propositions including the concept of “triangle” Trueness does not change.

In order for the use of this principle to be justified, the concept of “triangle” and the concept of “trilateral” are identical to each other at the conceptual level, but there must be different points to be replaced. In the case of Frege, the verbal expressions of 'morning star' and 'evening star' have the same reference, but they differ in their meaning. Likewise, Leibniz has the same concept of “triangle” and “trilateral”, bu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to justify substitution. Leibniz claims that these two concepts have different implications(elemental concepts). “Triangle” has the implication of “trianglarity”, but “trilateral” does not. If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substitution is justified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ir implication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logical writings of Leibniz, it is concluded that "triangle" and "trilateral" must share all implications(element concept). This conflicts with the claim that it has different implications. After all, the principle of “without changing the truth” cannot be justified in its use.

The reason Leibniz faced this problem is that he does not grasp the

Concept from our human point of view, but from God's point of view. Frege seems to solve the important point in the issue of identity, that of the same reference, and different meaning,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from our hum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However, Leibniz faces difficulties by failing to do this consistently.

Key words: Leibniz, Frege, Identity, Substitution, “the principle of *salva veritate*”(without changing the truth).

박제철 : jecull@naver.com

투 고 일	2020년 7월 12일
심 사 일	2020년 7월 25일
게재확정	202년 8월 19일